

탈공업화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

새로운 주체를 위한 노동계급 역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정인 | 사회주의노동자신문 독자회원

사회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대공업을 자본주의 생산의 집적과 집중의 필연적 결과물인 동시에 세상만물의 가치를 창출하는 물질적 생산의 중심이자 계급의식의 집약된 혁명 내지는 혹은 사회진보의 기지로 상정해왔다. 그러나 지난 십여 년 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 촛불투쟁, 희망운동의 경험들은 이러한 가정이 단순히 환상이나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역사적 경험인바, 객관적인 계급과 당위적인 계급 사이에는 항상 커다란 차이가 있어 왔다. 2차 대전 이후 세 번의 주요한 국제적인 반정부투쟁, 즉 68혁명, 90년대 반세계화 운동, 그리고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벌어진 여러 투쟁들에서 전통적인 공업노동자들은 보조자나 주변부에 머무를 뿐 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주의자들은 공업노동자계급이야말로 자본주의 최후의 순간 분기하여 새로운 세상

을 열어젖힐 메시아라는 철석같은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연 이러한 믿음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역사적 고찰을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대공장의 등장과 노동자의 보수화

1885년 엥겔스는 가장 산업화한 영국의 노동운동이 왜 사회주의적인 운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처음으로 “귀족화된 노동자”, 즉 노동귀족이라는 말을 언급했다.

지속적인 개량은 노동자 계급 중 보호 받는 두 부류에게서만 볼 수 있다. 그 중 첫 부류는 공장 노동자들이다. 이들을 위하여 적어도 비교적 합리적인 표준 노동일이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건강 상태는 상대적으로 회복되었고 정신적 우월성을 가지게 되었는바, 이 정신적 우월성은 그들이 한 장소에 집결되고 있는 관계로 더욱 강화되었다. … 둘째는 대형 노동조합이다. 이것은 성인 남자의 노동만이 사용되거나 또는 그러한 노동이 지배적인 노동 부문의 조직이다. 여기에서는 여성노동과 아동노동의 경쟁도 기계의 경쟁도 지금까지 그 조직적 역량을 타파할 수 없었다. 기계공, 목공, 소목, 건축 노동자들은 각각 그 자체로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으며 그리하여 건축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그들은 기계 도입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들의 처지는 1848년 이래 의심할 바 없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는, 지금까지 15년 이상이나 고용주들이 그들에게 매우 만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고용주들에게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노동자계급 중에서 귀족을 이루고 있다.¹⁾

1) 프리드리히 엥겔스, 「잉글랜드 노동계급의 처지 독일어 제2판 서문」, 『맑스·엥겔스 저작선집』 6권, 이수훈 옮김, 박종철출판사, p.385

그리고 엥겔스는 노동귀족이 생기는 원인을 영국 공업의 독점적 위치에서 찾았다.

영국의 공업 독점이 지속되는 한 영국 노동자 계급은 어느 정도 이 독점의 이익에 참여하였다. 이 이익도 노동자들 사이에 극히 불균등하게 분배되었다. 그 대부분은 특권을 가진 소수가 차지하였다. 그러나 광범한 대중도 때때로나마 일시적으로 한 몫을 얻곤 하였다. 바로 이것이 오언주의의 몰락 이후 영국에 사회주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유이다. 독점이 무너지면 영국 노동자 계급은 그 특권적 지위를 상실할 것이다. 그들 전체가 — 특권적이고 지도적인 소수들도 포함하여 —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에 처하게 될 날이 닥쳐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사회주의가 영국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²⁾

엥겔스가 예측한 대로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반 미국과 독일 같은 새로운 산업국가의 도전에 의해 세계시장에서 영국 산업의 독점은 붕괴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국 노동운동이 급진화 되진 않았다. 오히려 20세기 초 노동운동의 보수화가 서유럽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대규모 제조업의 등장과 궤를 같이 했다. 맑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대공업의 발전을 예측했지만, 당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수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한 장소에서 일하는 대공장은 아직 미래의 것이지 현실의 문제가 아니었다.

맑스가 『자본론』을 집필하고 있던 1850년대와 60년대에는 영국에서조차 공장 규모는 수백 명 정도에 불과했다. 『자본론』이 아마포를 예로 들어 상품생산을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주도적인 산

2) 같은 글, p.388

업은 면방직 공업이었다.

공장제 도입을 이끈 직물업에서 기계의 도입은 아동노동과 여성노동 같은 미숙련 노동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여지를 만들었다. 이들 공장에서 성인 남성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50%도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부분은 값싼 여성과 아동의 노동력으로 채워졌다.

당시 공장 노동자들의 처지는 엥겔스가 1845년에 쓴 『영국노동계급의 상태』에 잘 드러나 있다. 19세기 중엽 영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 형태는 파괴되었다. 조그만 쪽방 하나에 온 가족이 거주하며 부모와 아이들 모두 공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맑스와 엥겔스가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부른 집단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었다.

이로부터 맑스는 성별분업에 기초한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은 점차 사멸할 것이며 이는 기계제 공업의 발전으로 여성/아동과 남성 성인의 육체능력의 간극이 좁혀짐에 따라 사회성원 전체의 노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사회로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종래의 가족제도의 붕괴가 아무리 무섭고 메스껍게 보일지라도, 대공업은 가정의 영역 밖에 있는 사회적으로 조직된 생산 과정에서 부인·미성년자·남녀 아동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가족과 양성관계의 더 높은 형태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 토대를 창조하고 있다. ... 또한 남녀노소의 개인들로 집단적 노동그룹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것의 자연발생적이고 야만적인 자본주의적 형태[...]에서는 부패와 노예상태의 해로운 원천으로 되지만, 적당한 조건 하에서는 이와 반대로 인간적인 발전의 원천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도 명백하다.³⁾

따라서 맑스는 원칙적으로 여성과 아동의 노동참여를 반대하지 않았다. 이는 자유주의자들이 아동노동 일반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맑스가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본주의적인 아동노동의 폐지와 교육과 생산의 통일이라는 요구를 지지했음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맑스가 『자본론』의 집필을 완결지은 1860년대 이후 그가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경향으로 제시했던 생산 규모의 거대화 즉, 공장 규모의 거대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 시기 영국 자본주의 생산의 중심은 면방직 같은 소비재 산업에서 점차 철강·기계·조선·철도 같은 중공업으로 이동했다. 이와 함께 비로소 오늘날의 대공장처럼 같은 작업장에서 수천, 수만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산의 집적과 집중이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강화되고 노동자운동이 정치적으로 급진화 될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산업 변화에 따라 제조업에서 여성과 아동 노동력은 점차 축출되었다. 중공업의 발전과 함께 소위 ‘가족임금’이 등장하여 노동자 가정도 부르주아 가족과 유사하게 남성노동자 1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형태가 되었다. 노동계급의 여성은 가사노동으로 돌아갔고 아이들은 새롭게 등장한 보통교육제도에 의해 학교로 흡수되었다. 엥겔스가 1880년대 영국의 “귀족화된 노동자”에 대해서 썼을 때, 그가 노동귀족으로 보았던 집단은 전자본주의의 유제로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고 있는 수공업적인 노동자들과 새롭게 등장한 공장노동자들이었다.

영국에서 19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던 산업의 이동, 즉, 2차 산업혁

3) 칼 맑스, 『자본론 I (하)』,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제 2개정판), p.656

명이라고까지 불리는 철도·조선·탄광·철강·공작기계 산업의 상호 연관된 발전과 생산단위의 거대화는 북서유럽국가에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일반화되었으며 이들 산업에서 일하는 육체노동자들은 대략 1880년대에서 1920년대 사이에 단일한 조직적·정치적 계급으로 형성되었다. 생산의 대규모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기계에 의한 숙련의 대체 등에 의해 장인·직인·숙련공 중심의 노동운동이 몰락하고 대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매우 동질화된 반숙련·미숙련 육체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노조·정당·공제조합·협동조합·소비조합·취미클럽 등을 통해 ‘노동자 문화’라고 불리는 독특한 하위문화를 형성하며 동질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노동자들의 새로운 세대는 전 시대에 제기되었던 보통선거제의 실질적 확대를 쟁취하며 독자적인 노동자정당을 구성했으나, 보통선거제의 점진적 확대와 생활수준의 전반적 향상과 함께 자신의 정치행위를 평화적인 시위와 투표행위로 제한하고 작업장 투쟁에 자신을 가두었다. 그 결과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분리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맑스와 엥겔스가 1840년대 영국에서 목도한 “읽을 것이라는 노예의 쇠슬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 밖에 없었던 전투적이고 정치적인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후예들은 여전히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들과 달리 더 이상 아무 것도 읽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영국과 달리 독일을 중심으로 대륙에 새롭게 등장한 노동운동은 맑스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삼았고 사회민주당과 인터내셔널로 정치적으로 조직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륙의 노동운동이 엥겔스가 생각한 것처럼 영국의 노동운동보다 급진적인 운동이었는데는 꽤나 의심스럽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노동운동의 형성 초기부터 국가, 가

족, 여성에 대한 입장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맑스는 1875년 고타 강령이 나오자 “자유로운 국가”라는 강령의 요구가 라살레주의 국가관에 타협한 것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실은 맑스 파라고 불렀던 아이제나흐 파, 즉 독일 사회민주노동자당의 강령 역시 그 제 1조에 “자유로운 인민 국가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버젓이 밝히고 있었다. 국가주의적 경향은 엥겔스가 당시까지 나온 강령들 중 가장 맑스주의적인 것이라고 논평한 1891년의 에르푸르트 강령에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카우츠키가 쓴 에르푸르트 강령 해설은 여전히 “미래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또 제2인터내셔널은 아동노동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와 여성노동에 대한 제한을 주장했다.

사실 제2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실천적으로 노동조합 운동과 결합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이었으며 이념의 혁명적 성격과 괴리를 보이고 있었다. 이미 엥겔스가 살아있을 때부터 사민당 지도부에 의해 맑스·엥겔스의 저술에 대한 왜곡과 조작·누락이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엥겔스는 죽기 얼마 전 『프랑스에서 계급투쟁』에 붙인 새로운 서설에서 19세기의 혁명 전술이었던 도시 바리케이드 투쟁이 더 이상 적절한 전술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문서는 상당 부분이 삭제되면서 폭력투쟁 일반에 대한 비판으로 읽혀지게끔 편집되었다. 그 결과 이 글은 독일 사민당에서 엥겔스를 의회주의적 평화주의자로 해석하는 주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1895년 엥겔스가 사망하자 사민주의 운동은 곧바로 수정주의 논쟁에 휩싸이며 내적으로 분열되었다. 엥겔스의 공식적인 후계자이자 당내 가장 권위 있던 이론가였던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로의 변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수정주의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독일 사민당의 실천을 이론적으로 합리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1차 대전이 발발하자 서유럽 노동운동의 실체는 여지없이 폭로되었다. 제2인터내셔널 회원 단체들은 전쟁 이전에 이미 반전운동을 결의하고 있었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자 노동자들을 사로잡은 애국주의 열풍에 굴종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정주의자 베른슈타인은 전쟁공채 투표를 반대했지만, 당의 공식적인 이론적 지도자 카우츠키는 전쟁공채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서유럽 사민주의 운동의 변질에 충격을 받은 레닌은 이 변질 과정을 제국주의 분석을 통해 설명하려 했다. 그는 엥겔스의 노동귀족 이론을 더욱 확대하여 서유럽 전반에 적용시켰다. 레닌은 세계를 분할하고 있는 주요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주민에 대한 초과착취를 통해 자국의 노동계급 중 일부를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로 유럽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보수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분열

엥겔스와 레닌의 노동귀족이론은 당대 노동운동의 보수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이를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노동귀족이론은 몇 가지 난점을 가지고 있다. 어디까지 노동귀족이고 어디까지 노동자계급인가는 애매한 문제로 남았다. 특히 레닌의 노동귀족이론은 식민지에서 뽑아낸다고 상정된 초과이윤을 실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산업국가 중심부에서 혁명의 전망이 없다는 논리로 귀결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대한 맹아적인 문제점은 부하린과 레닌의 미묘한

차이에서 나타났다. 1차 대전 발발 이후 레닌의 제국주의 분석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볼셰비키 이론가 니콜라이 부하린은 “조직자본주의”라는 개념과 함께 소위 “약한 고리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레닌은 이런 논리가 잘못하면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을수록 혁명이 일어나기 쉽다는 논리가 될 가능성을 재빨리 간파했다.

그래서 레닌은 대신 흔히 알려진 것처럼 “약한 고리”가 아니라 이와 구별되는 “중간정도의 약한 고리”라는 개념을 제시했다.⁴⁾ 그에 의하면 노동운동이 보수화된 서구도, 자본주의가 미발달한 동양도 아닌 러시아처럼 어느 정도 산업이 발달하고 노동자들이 중첩된 모순에 고통 받고 있는 중간 정도의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레닌은 제국주의 분석을 기초로 이 혁명은 일국의 혁명에 제한되지 않고 즉시 세계혁명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간정도의 약한 고리에서 시작된 혁명은 서유럽의 공업노동자들이 주체가 된 사회주의 혁명과 동양 식민지의 민족해방 투쟁과 결합하여 세계혁명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레닌의 전망은 민족해방 투쟁 일반을 부르주아적인 것이라고 적대시한 서유럽 좌익공산주의자들과 달리 식민지의 민족해방 투쟁에 상대적인 중요성을 두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1968년 이후 자국의 노동

4) 부하린은 『과도기의 경제학』에서 “부르주아지의 사회적인 힘이 자본의 경제적 조직과 유착된 국가 권력에 집적되어 있다는 사실은 노동운동에 대해 크나큰 저항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붕괴는 가장 약한 국민경제체로부터, 국가자본주의 조직이 가장 미발달한 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썼는데, 레닌은 이에 대해 “정확하지 않다. 중간정도의 약한 고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일정하게 고양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자들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한 급진적 좌파운동은 유럽이 아니라 제3세계 해방투쟁에 중심을 두었다.

그러나 이런 논리들은 보다 전통적 맑스주의자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이단적인 것으로 비추어졌다. 따라서 맑스주의자들에게 노동귀족이론은 일반적으로 기각되었다. 스탈린주의적인 유럽의 공산당들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기본으로 한 운동을 계속했다. 반면 보다 좌익적 맑스주의자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운동의 보수화를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공업노동자들의 중심성을 방어하기 위해 노조관료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기했다. 이런 논리를 특히 정교하게 제시한 것은 토니 클리프를 위시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이론가들이었다.

한국에서 노동귀족론과 노조관료론을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조관료이론은 이론사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귀족이론을 부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적 장치였다. 이 이론은 사실 맑스주의 역사에서 이질적인 전통을 수용한 것이었다. 사회주의노동자당과 국제사회주의 경향의 창시자인 토니 클리프는 레닌과 엥겔스의 논의가 아니라 베버를 시조로 하는 부르주아 사회학적 분석의 틀을 도입해 노조관료이론을 만들었다. 주로 독일 사민당에서 활동했던 이탈리아 사회학자 로베르트 미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료제의 발달에 대한 막스 베버의 분석을 독일 노동운동에 적용했다. 그는 1911년에 쓴 『정당사회학』을 통해 독일의 노조와 사민당 모두에서 관료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 조직에서 일반 노동자들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서술했다. 사회주의노동자당 이론가들이 만든 노조관료이론은 베버와 미헬스의 분석의 맥을 잇는 것이었다.

이런 이론적 경향은 결국 이들이 서유럽 노동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이었다. 엥겔스나 레닌의 주장처럼 영국이나 서유럽의 공업노동자들이 노동귀족이라면 이들 나라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자 하는 정치 세력은 처음부터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상정된 노동귀족을 대상으로 조직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니 클리프를 비롯한 국제사회주의 경향의 이론가들은 유럽에서 전통적인 산업노동자들의 투쟁이 크게 벌어졌던 1920년대와 1960~70년대 투쟁을 근거로 노동귀족이론으로는 영국 같은 선진 산업국가에서 벌어진 대규모 노동자 투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대신 자본주의 사회의 노사관계에서 일상적인 교섭을 담당하는 노조관료층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집단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일상적 시기에 일반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겉보기에 보수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반 노동자들은 여전히 잠재적인 혁명성과 투쟁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시기에 일반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투쟁과 결합된 사회주의자들의 선전·선동은 노조관료라는 자본주의 완충장치를 뚫고 나와 이들을 다시 혁명적 계급으로 조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들은 1920년대 영국 총파업이나 1960~70년대 벌어졌던 슝스튜어트 투쟁 같은 일반 노동자들의 투쟁에 주목했으며, 그것은 반관료 평조합원 노선으로 정식화되었다.

그러나 노조관료이론은 사실 전통적 공업노동자에 대한 혁명적 신뢰 이상,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니었다. 관료주의는 일반 조합원들의 조합주의에 의해 지탱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노조관료들은 조합주의의 인격적 화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미 1950년대부터 산업노동자들의

부르주아화 되었다는 주장이 등장했고 특히 지난 40여 년간 주요 산업 국가들에서 벌어진 주요한 반정부 투쟁에서 제조업 대공장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적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형성된 공업노동자계급은 2차 대전 이후 급속하게 보수화되었다. 1950년대 장기호황 이후 노동조건이 급속히 개선되었으나 이러한 투쟁은 공장 밖의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1950년대 미국에서 미래의 산업노동자들은 48년간의 고용보장, 연간 48주, 주 48시간의 노동시간이라는 세 가지 48을 기대할 수 있었다. 호황에 따라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1950년대 말이 되면 사회학자는 부르주아화한 노동자를 발견하기 시작했다.”⁵⁾

60년대 말, 서유럽 국가에서는 학생들의 투쟁이 불러일으킨 전사회적 위기에 호응하여 노동자들의 파업의 물결이 휩쓸었다. 북미에서 195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노동자들의 생활개선이 서유럽에서는 대중투쟁의 성과로 급격히 개선되었다. 1968~1970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서 파업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은 예년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임금인상을 획득했다.

2차 대전 이후 오스트리아와 북유럽 3국,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존재하던 국가관료·기업관료·노조관료의 3자 협의체인 코포라티즘 체제가 1970년대 들어 서유럽 국가들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제도주의자들은 코포라티즘을 케인즈주의, 포디즘과 함께 장기호황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양식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코포라티즘은 사실 68~72년 사이에 유럽을 강타한 노동자

5) 메그나드 데사이, 『마르크스의 복수』, 김종원 옮김, 아침이슬, p.380

대중투쟁을 포섭하기 위한 대응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노동자투쟁은 70년대 들어 빠르게 퇴조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노동자당 이론가들이 주목했던 영국의 평조합원 운동도 흔히 '불만의 겨울'로 불리는 1978년 말 대규모 투쟁에서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1980년대 몰락했다. 70년대 불황이 강타하자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는데 급급했고, 80년대 정치적 반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다시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

맑스주의자들은 사실상 이러한 현실에 대해 눈을 감았다. 유럽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들은 조직노동운동의 경제주의를 정당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클리프 류의 노조관료이론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전통적인 공업노동계급의 혁명성을 관념적으로 정당화하고 그들의 보수성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

맑스주의자들이 공업노동자들의 보수화라는 현실에 눈을 감으려 하고 있을 때, 부르주아 사회학에서는 70년대 초 이를 반영하여 내부노동시장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내부노동시장이론은 대규모 작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경쟁에 제약받지 않는 폐쇄된 노동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1980년대 들어 노동계급의 분절화 이론, 이중노동시장 이론으로 발전해 들어갔는데 그 핵심은 대공장을 중심으로 한 폐쇄된 노동시장이 존재하며, 여기서 배제된 하층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사회학자 되린저와 피오르가 처음 제기한 내부노동시장이론은 공장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소위 기업특수적인 숙련에서 원인을 찾

았다. 기업 특수적 숙련이란 공장의 기계설비에 고착된 모종의 숙련이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기술혁신으로 공업 부문에 전반적으로 탈숙련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노동시장은 건재했다. 되린저와 피오르는 미국 현장 특유의 직무급제를 내부노동시장 형성의 중요한 기제로 파악했지만 직무급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대규모 제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제조업 대공장의 폐쇄적 노동시장이 숙련이나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대공장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이런 폐쇄성의 형성은 엥겔스가 지적한 대로 대규모의 인적 집결성이라는 대공장 자체의 잠재력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0세기 초 공장규모가 일반적으로 확대되는데 주요한 계기를 제공했던 포디즘 체계는 그 형성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유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1914년 헨리 포드는 ‘T-모델’ 조립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일일 작업 8시간 당 5달러를 지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시 일반적인 공장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의 세 배에 가까운 임금이었다. 대공업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와 인적 집약성으로 인한 조직화 가능성은 비교적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좋은 노동조건을 제시하게 했다.

이런 포드 유형의 대공장은 대규모 기계 설비를 놀리지 않기 위해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포드 유형의 대공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풀타임 노동자, 소위 말해 정규직 고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고용관계의 안정성은 다시 노동조합의 조직을 이전에 비해 용이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2차 대전 이후 조직노동운동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가 고용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공공 부문과 대규모 제조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1950년대

와 60년대 장기 호황 국면에서 높은 조직률을 가진 서구의 노동조합은 안정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갔다.

9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확대되었다고 흔히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노동유연화에 의해 내부노동시장이 해체되었는가? 여러 연구 결과들은 전통적인 화이트칼라 분야에서는 노동유연화의 진행과 함께 내부노동시장이 일정정도 붕괴되었으나 대규모 제조업에서는 축소된 형태긴 하지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유연화는 탈공업화와 함께 새롭게 창출된 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추진되었다.

탈공업화와 계급논쟁

1973년 이후 서유럽과 북미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제조업 고용이 뚜렷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유럽 좌파와 맑스주의자들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은 대개 탈공업화 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보다는 전통적인 계급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었다.

19세기에 중간계급, 즉 맑스주의 용어로 뽀띠부르주아는 임금이 주요 소득이 아닌 자영농민과 수공업자를 의미했으며, 프롤레타리아는 일반적으로 임금소득자와 동의어로 여겨졌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공무원, 기술자, 감독자, 사무직, 판매직 노동자 등 임금소득이 주수입이면서도 전통적인 공업노동자와 출신성분, 생활환경, 정서, 의식에서 큰 차이가 있는 새로운 계층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로 말미암아 이미 이 당시 사민당 내부에서 이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인지 아니면 중간계급에 속하는 자들인지 논쟁이 벌어졌다.

베른슈타인은 제2인터내셔널 주류의 계급양극화 이론을 비판하며 이런 부류의 임금고용인들을 중간계급이라고 간주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자본주의 하에서는 계급 양극화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계급이 늘어나며 오히려 사회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우츠키를 위시로 한 독일 사민당 주류는 임금소득자들은 결국 양극화 경향을 피할 수 없으며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집단으로 간주했다. 이 두 경향은 사실 1970년대 논쟁을 예기하는 것이었는데, 논쟁과 무관하게 독일 사민당은 비(非)공업노동자 당원들이 증가하며 점차 “국민” 정당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계급의 범위에 관련된 논쟁은 러시아 혁명의 승리와 함께 공장노동자만을 프롤레타리아트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우세해지면서 끝이 났다. 혁명을 이끈 볼셰비키는 당의 기반을 공장에 두고 있었으며, 이들에게 새로운 임금소득자들은 동맹의 세력도 계급적 연대의 대상도 아니었다. 당시 제2인터내셔널에는 러시아 혁명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일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에 있어 멘셰비키는 부르주아 혁명은 봉건세력에 맞서는 노동자와 부르주아적인 중간계급의 동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볼셰비키는 민주주의 혁명에서조차 혁명의 주체는 공업노동자와 농민들이라고 주장했다.

볼셰비키는 프롤레타리아트를 공장노동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는 독일처럼 중간계층이 발달하지 못하고 대규모 작업장이 외자유치를 통해 이식된 러시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소련 공산당의 주도성이 강화된 1차 대전 이후 국제 사회주의 진영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공장노동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수용되었다. 이런 경향

은 1930년대 들어 하급 사무직 근무자들이 파시즘의 지지자로 드러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공장노동자들의 보수화와 제조업 비중의 축소에 따른 정치적 실천의 변화가 제기되며 유사한 계급 논쟁이 부활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제조업 생산의 거대화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대공황을 거친 뒤 활짝 꽃을 피웠다. 두 세계대전 사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의 변화는 2차 대전 이후 서유럽과 일본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일반화되어 내구소비재, 전자산업, 자동차, 철강, 석탄, 석유생산 산업이 상호 연관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런 산업의 융성은 이중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의 호황 동안 생산이 확대되고 생산규모가 거대화되며 제조업 고용이 증가했지만 비제조업의 고용은 더 빨리 증가했던 것이다. 미국의 좌파 학술 잡지 『먼슬리 리뷰 (Monthly Review)』의 대표적 이론가 폴 스위지와 폴 바란은 1966년에 발표한 『독점자본』이라는 저서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전통적인 독점자본주의와 연관시켰다. 그들은 독점자본 시대에 등장한 생산의 거대화는 대규모의 경제잉여를 창출하고 이 경제잉여를 처분하기 위해 커다란 비생산 영역이 창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차 대전 이후에 서구 사회에서는 공공부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한편 거대해진 생산을 기획·관리하고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상품을 광고하고 유통하는 영역이 비대하게 발전했다. 스위지와 바란은 이를 대규모 경제잉여를 처리하기 위한 자본의 노력으로 규정했다.

1970년대 계급 논의는 주로 이런 부분은 일하는 임금소득자, 흔히 화이트칼라라고 명명된 사회집단의 성격에 대한 논쟁으로 집중되었다.

전통적인 공업노동자를 놓고 경쟁하던 사민당과 공산당,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들은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화이트칼라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논의를 시작했다. 사민당들은 베른슈타인과 유사하게 이들로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갔다. 반면 공산당은 여전히 공장노동자들이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개념을 유지하며, 이들이 노동계급이 아니라 새로운 중간계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유럽 공산당들은 반독점민주주의라는 폭넓은 전선 하에서 이들과 동맹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유럽 공산당의 전략을 주도한 그리스 출신 사회학자 니코스 폴란차스의 계급론은 반독점 민주주의 전선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자계급에 대한 논의는 19세기 말과 마찬가지로 공산당과 사민당 모두의 정치적 우경화로 귀결했다.

이 두 경향과 다른 제3의 이론을 제기한 것은 스위지와 바란과 같이 『먼슬리 리뷰』 그룹에 속한 해리 브레이버맨이었다. 그는 1976년에 『독점자본』의 분석을 현대 자본주의 계급분석에 적용시킨 『노동과 독점자본』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여기서 브레이버맨은 제조업 뿐 아니라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단순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창출되고 있으며 이들의 성격은 제조업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레이버맨의 주장과 달리 이후의 연구들은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의식은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비제조업 화이트칼라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제조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1980년대 들어서자 서구 산업 국가들의 탈공업화 경향은 더욱 분명해졌다. 부르주아 사회학자들은 산업공동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좌파 사회학자

앙드레 고르는 1980년 선견지명적인 통찰력을 담은 『프롤레타리아여 안녕』이라는 책을 통해 이제 전통적인 공업노동자의 역사적 역할이 끝났다고 대답하게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전통적인 노동계급은 이제 특혜 받은 소수층일 뿐이다.” 앙드레 고르는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전통적 노동계급에 속하지 않는 신(新)프롤레타리아가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들은 다른 어떤 계급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도 동일성을 가질 수 없는 비(非)계급이다.

인구의 대다수가 후기산업사회의 신프롤레타리아에 속한다. 이 신프롤레타리아는 불안정한 지위의 보조직·기간직·구(舊)기술의 노동직·대체직·파트타임직을 수행하는 지위와 계급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일도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는 자동화 때문에 상당수 폐기될 것이다.⁶⁾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견해를 고수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1972년 대표적인 트로츠키주의 이론가였던 에른스트 만델은 『후기자본주의』라는 책에서 본질적으로 비생산적 분야인 서비스산업의 팽창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 그것은 기술발달에 따라 상품 산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교통 서비스는 자가용에 의해, 극장이나 영화 서비스는 개인 텔레비전 세트에 의해서 대체되며 장래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교육훈련이 비디오 카세트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⁷⁾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 이론가들은 앙드레 고르의 『프롤레타리아트여 안녕』에 대한 답변으로 공업노동자들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 국가로 이전되고 있

6) 앙드레 고르,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이현웅 옮김, 생각의 나무, p.110

7) 에른스트 만델, 『후기자본주의』, 이범구 옮김, 한마당, p.396

을 뿐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북미와 서유럽에서 제조업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대만 등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전체 공업노동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탈공업화 경향이 단순한 이전이나 정체가 아니라 역전불가능한 자본주의의 경향이라는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명확해졌다. 2003년 발표된 미국 알리안스 자산관리사의 세계 20대 경제국 고용 동향 분석에 따르면 1995~2002년까지 제조업분야의 일자리는 2200만여 개가 줄어들어 11%가 넘는 감소를 기록했다. 이 기간 미국의 제조업 고용은 11.3% 하락했으며 일본은 16.1% 하락했다. 사회주의노동자당 이론가들이 공업노동자 증가의 예로 제시한 브라질과 중국, 한국에서도 제조업 일자리는 각기 19.9%, 15.3%, 11.6% 감소했다. 이런 결과는 그들이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 창출의 진원지라고 주장한 신흥공업국가에서도 제조업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 전통적인 맑스주의 이론가들이 여전히 탈공업화를 부정하고 있을 때, 탈공업화 논의를 넘어 인간의 노동력 사용 자체가 종말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고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1995년 출간된 미국의 사회비평가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과 1996년에 나온 프랑스 작가 비비안 포레스테의 『경제적 공포』는 제조업의 축소를 넘어 인간노동의 종말을 예상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노동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은 자동화의 진전이 결국 인간 노동력 사용에 종말을 고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비단 제조업뿐 아

나라 농업과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런 유의 주장이 옳다면 당연히 실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주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실업률은 1975년에서 1985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했다가 1990년대 이후 정체 되거나 심지어 미국의 경우에는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경제위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마찬가지였다.

공업노동자들의 절대적 숫자가 감소 혹은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제조업 노동자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사회적 필요가 등장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탈공업화는 노동의 종말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노동방식을 창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탈공업화의 배경이 된 1970년대 북미와 서유럽의 경제침체는 이윤율의 저하 때문이라는 것이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합의 되었다. 이로 인해 맑스주의 이론진영에서도 종래의 과소소비설에서 맑스가 『자본론』 3권에서 제시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이 새삼 자본주의 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부각되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맑스는 『자본론』 3권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자본의 구성에서 불변자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기술이 진보할수록 잉여가치를 낳는 노동자의 수는 불변자본 요소의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본은 노동생산성을 계속 상승시켜서 경쟁자들에 비해 더 많은 잉여가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므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갈수록 고도화할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의 변화는 이윤율의 저하경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근래의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특성으로 많은 논자들이 금융화를 꼽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에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금융부문의 팽창이 생겨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금융의 팽창이 완전히 새롭고 특이한 현상은 아니었다.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화폐자본이 생산으로부터 유리될 때 일반적으로 금융적 팽창이 형성되었다. 이런 금융의 과도한 팽창은 높은 이윤율을 보장하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투자처가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곤 했다. 문제는 1970년대 이후 이렇게 옷자란 자본을 흡수할 만한 제조업의 확대가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소위 제1부문과 자동차를 비롯한 내구소비재 부문의 발전이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이끌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40여 년 동안 제조업에서 그에 상응할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휴대폰,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제조업 영역이 창출되고 있지만 이들이 지난 시대의 기계·철강·자동차산업처럼 경제성장을 이끌기 역부족으로 보인다. 일단 이들은 그것들에 비해 비교적 값싼 소비재일 뿐 아니라 새로운 제조업 부문에 보다 쉽게 적용되는 기술혁신은 전보다 훨씬 줄어든 노동자로 필요한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브레너는 『혼돈의 기원』에서 1965년에서 1973년 사이 제조업에서의 이윤율 저하 때문에 금융부문의 팽창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이 시기 이후 비제조업의 이윤율이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브레너는 맑스의 이윤율 경향적 저하 법칙이 지나치게 단순한 모형이라고 비판하며 제조

업 분야의 이윤율 하락 원인을 과잉축적과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브레너는 자동화 혁명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0년대 위기 자체는 제조업 분야의 과잉축적으로 촉발된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2차 대전 직후 트랜지스터와 반도체의 개발로 출발한 소위 극소전자 혁명,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혁신이 70년대 이후 모든 제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맑스가 제시한 대로 상대적 잉여가치 창출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산업 자본가들의 대응이었다. 기술혁신은 제조업에 필요한 노동자들을 줄이고 선진산업국가에서 제조업의 이윤율을 전반적으로 더욱더 하락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기능한 것이 분명하다.

지난 40년 동안 모든 주요 산업국가에서 서비스 산업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제레미 리프킨이 주장한 대로 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 영역에서 퇴출되는 부분도 분명 존재했다. 그가 자동화의 결과로 노동력 사용이 줄어든 서비스분야의 예로 제시한 전화 교환수, 우편 서비스, 일반사무직, 유통업과 같은 부분들은 공공서비스, 사무, 유통 등 2차 대전을 거치며 급증한 서비스산업의 보다 전통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서비스영역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임금노동자의 60~70%를 차지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을 넘어서는 또 다른 확대과정 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제조업을 비생산영역으로 바라보는 사고로는 이 부분들의 팽창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서비스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따라서 여전히 제조업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논리들은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른바 서비스 사회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하나의 유력한 가설은 제조업 이윤율보다 서비스산업의 이윤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고정자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시에 이윤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고정자본의 비율이 낮은 산업은 당연히 생산성은 낮겠지만 이윤율의 저하 경향에서는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제조업에 비해 노동력 사용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 서비스산업은 노동생산성은 낮으나 이윤율은 높을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 제조업으로부터 금융부분의 팽창을 거쳐 가변자본 비율이 높은 비제조업, 특히 대인 서비스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합리적이다. 맑스의 『잉여가치학설사』에는 “농업에서 이윤율은 공업에서의 이윤율보다 떨어지므로 자본은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동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현상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의 종말에 반하여』라는 책에서 프랑스 사회학자 필리프 프티는 제레미 리프킨이나 비비안 포레스트의 주장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그녀에 따르면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제조업이나 기존의 서비스산업에서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 과학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공동생활의 한 분야가 있다”고 한다. “육체적·정신적, 지적으로 아이들·청소년들·노인들·병자들·장애인들, 그리고 심지어 생

산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성인들을 돌보는 것, 가르치고 보살피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다. 그들, 사람들의 요구는 무한하다. 따라서 이른바 일자리의 광택도 무한하다.”⁸⁾

그녀는 앞으로 이런 일자리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최근의 자본주의는 이런 분야들을 지속적으로 상품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부쩍 돌봄 노동,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제레미 리프킨 역시 전반적인 실업 사회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가 제3부문이라고 이름붙인 자발적인 사회봉사의 영역에 국가가 사람들을 고용하고 일정정도의 소득을 지급해 줄 것을 제기한다. 자발적인 사회적 서비스의 영역을 저소득층이 일하는 저임금 일자리로 만들자는 리프킨의 위험한 아이디어는 하지만 이미 사적 자본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이나 필리프 프티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노동화가 인간에게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함께 새로운 사회 참여의식을 고양해 줄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2006년 일본 메이데이 프레카리아트 행사 광고의 글귀는 이런 노동이 지금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고용주 측은 “노동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같은 동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감언이설을 남발한다. 그리고 그 곳에서 아무런 보장도 없이 싼 시급으로 불평 없이 일해주길 원하고 때로는 기꺼이 무급으로 노동해주기를 바란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감정, 대인 서비스갈

8) 도미니크 슈나페르, 『노동의 종말에 반하여 - 필리프 프티와의 대담』, 김교신 옮김, 동문선, p.75

이 사람의 생 자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 잠시 착각하기도 한다. 직장에서 '자기실현'의 기회를 기대하고 하찮은 작업에서 '보람'을 발견, 감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쨌든 '직업인이 된 듯한 기분'도 '사이좋은 클럽'에 대한 기대도 곧 배신당한다. 일하는 장소는 수시로 바뀌고, 그때까지 손에 익은 기술은 곧 쓸모없어지기 때문이다. 오후에 낚시를 하고 밤에 토론을 하는 생활과는 거리가 멀고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된다. 그런데도 "일할 의욕이 없다, 엄살이다."와 같은 비난 세례를 받고 있다. 문제는 항상 이것이 개인의 자질 탓이라며 '인간력'을 높이라고 참견하는 설교가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비정규직인 사람들은 이런 적이나 조소와 겨루고 있다. 이 전망 없고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견뎌야 한다.9)

이러한 일자리들은 과거 인격적으로 종속된 신분사회에서 하인노동이라고 불리었으며, 신분사회의 붕괴와 함께 예측적인 기능에서 풀려나 자발적인 사회봉사의 영역으로 존재하던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는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공통체적 본성에 기인한 자발적인 영역이던 사회서비스, 혹은 인간서비스의 영역을 자본이 이윤을 찾아 상품화시키고 있는 걸로 보아야 한다.

제조업에서 노동유연화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반해 노동유연화의 확대와 서비스 노동의 확대가 서로 중첩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후발 공업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대규모 작업장에서 사내하청이라는 전근대적 고용관계가 초기부터 존재했고, 9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포디즘에 기초한 대규모 작업장의 형성과 함께 정규고용을 중심의 노사관계가 확립된 서구의 경우 신자유주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 노동유연화

9) 아마미야 가린, 『프레카리아트, 21세기 불안정한 청년의 노동』, 김미정 옮김, 미지북스, p.24

의 확대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노동유연화는 법률과 조직의 보호를 받는 이들 부분을 비껴나 대개 비제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유동적이고 분산적인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

사회적 구성의 변화는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세력들에게 저항의 주체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1968년을 전후해서 유럽과 북미, 일본에서 벌어진 혁명적 투쟁들은 그전까지 분배의 문제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던 여성·환경·인종 문제를 전면으로 부각시켰다.

1970년대 이전까지 사민주의든 공산주의든, 전통적인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사회의 진보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했다. 그러나 사회진보의 담지자로 상정된 공업노동자들은 오히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그 결과는 급진 정치의 분열로 나타났다.

대공장을 중심으로 한 공업노동자 운동의 보수화는 1980년대 이들을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반대운동의 주체로 세우는 데 실패한 것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흔히 노동계급이 신자유주의에 투쟁해야 하는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제조업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기술진보로 유기적 구성이 고

도화되면 생산성의 향상으로 총 노동자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필요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이들 부분에서 총임금은 줄어들게 된다.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줄어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정정도 유지시키면서 생산을 지속시키는 것이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다. 오히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을 길들이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싸게 먹힐 것이다.

1980년대 서구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벌어졌지만 기존 조직노동운동의 대응전략은 구조조정을 인정하고 남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80년대를 거치며 대규모 작업장의 조직노동자들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는 상당히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임금저하 경향은 기존 조직노동운동의 임금이 하락했다기보다는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층의 창출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옳바를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작업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노동자들과 여타 분야의 노동자들의 이해는 크게 달라졌다. 90년대 들어 많은 나라들에서 조직노동자와 정부의 협약에 의해 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제조업 고용의 노동량이 줄면서 9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었지만 이는 노동유연화의 확대와 직결되며 정규직과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그 속에서 대규모 작업장은 마치 불안정 노동자들의 거대한 바다에 뜬 작은 섬들처럼 고립된 별천지가 되었다.

공간적으로도 한국을 비롯한 많은 산업 국가들에서 대규모 작업장은 폐쇄적인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로 대규모 작업장의 입지조건과 노동자들의 의식상태는 19세기 농민과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작업장의 노동자들은 19세기 자영농민들처럼 사회적 변화에 둔감하고 개인의 경제적 이해에 집착하는 경향을 뚜렷히 드러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90년대 주식투자 같은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며 자본가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노동자본가(worker capitalists)라는 말이 유행했다. 한국에서도 최근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보수정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는 사례에서 보듯이 대공장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은 퇴행적 측면을 보이고 있다.

80년대 이후 저항 담론은 다양하고 분산된 영역에서 저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주요한 문제로 제기했다. 이런 상황은 미셸 푸코, 질 들뢰즈 등 포스트구조주의 이론가들의 문제의식이 세계를 풍미하는 현실적 배경이 되었다. 전통적 좌파이론이 여전히 보수화된 공업노동자들에게 집착하고 있을 때, 개인의 저항에 기초한 포스트구조주의는 보다 급진적이고 새로운 운동의 이념적 좌표를 가리키는 듯 보였다. 그러나 포스트구조주의 이론은 구체적인 위치에서 저항을 하다보면 어찌다가 집단적인 투쟁이 된다는 식 이상으로 전진하지 못했다. 개별적인 탈주의 선들이 어느 순간 접합해서 흐름이나 덩어리가 된다는 들뢰즈의 형이상학은 이를 은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조업이 축소되고 기존의 노동운동은 쇠퇴하고 있으나 종래의 공업노동자계급을 대체할 동질적인 사회집단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대적 한계의 반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위적 정치정당으로 집약되어 그의 지도를 받는 동질적인 노동계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결국 유일하게 가능한 저항 운동은 개별화된 운동의 연합일 뿐이라는 생각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앙드레 고르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전통적인 공업노동자 계급이 아닌 새로운 사회집단이 광범위하게 창출되지만 이들은 “은행·관공서·청소서비스업체·공장 등 어디에서 일하건, 무차별적 직무에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비(非)노동자”이며, 집단적 주체로 등장할 수 없는 “특수한 개인성”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래서 고르는 그들이 미래 사회 전체적인 전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역사적 사명의 부여받았다고 상상한 과거의 계급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 끝에 그가 제시한 대안은 국가의 지배력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확장시키는 것이었다.¹⁰⁾

완고한 맑스주의자들도 이런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80년대 초반, 포스트주의자들에 맞서서 전통적인 공업노동자 중심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회주의노동자당은 90년대 들어 평조합원 전략을 포기했다. 대신 이들은 자신들이 비판해 마지않던 반전·반세계화와 같은 인민전선 운동의 새로운 버전으로 후퇴했다. 프랑스의 구조주의 맑스주의자 에티엔 발리바르는 80년대 “계급 없는 계급투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객관적 실체로서의 계급 개념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맑스가 『철학의 빈곤』에서 “즉자계급”이라고 표현한 객관적 계급관계는 그가 “대자계급”이라는 말로 표현한 의식적 계급 형성의 바탕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발리바르는 실체로서의 계급을 부정하고 이를 사회적 투쟁의 효과로 환원시켰다. 그것은 결국 전통적 노동계급의 개념을 넘어 계급의 확대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급진적 맑

10) 앙드레 고르,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3장 「사회주의를 넘어서」를 보라

스주의자로 아우토미아 운동가였던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네그리는 사회적 노동자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노동계급의 개념을 대단히 광범위하게 확대시켰다.

포스트구조주의의 영향을 풍부하게 흡수한 네그리는 결국 “계급”이나 “노동자”라는 개념을 사실상 포기하고 “다중”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기했는데, 그에 의하면 다중은 과거의 공업노동자 계급과 달리 서로 다른 문화, 인종, 종족, 젠더, 성적 지향 및 상이한 노동형태와 생활방식, 세계관, 욕망 등과 같은 수많은 내적 차이들로 이루어져 있어 결코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는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차이의 정치와 맑스주의의 절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입장에서는 동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에 대한 단일한 전망을 가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양적인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민주의적 전망에 흡수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네그리 역시 여전히 코뮌리즘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는 매우 불분명하다. 네그리가 『제국』에서 제시한 전지구적인 시민권, 사회적 임금, 지식정보 공유권 같은 요구를 볼 때, 그 역시 다중으로부터 급진적 민주주의 이상의 공통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중 이론은 90년대 들어서 활성화된 반세계화 운동, 반전 운동에 대한 이론적 반영물이다. 반세계화·반전운동은 멕시코 농민들로부터 전통적인 맑스주의 정치조직들까지 매우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괄했다. 이 투쟁들은 전통적인 조직노동운동의 참여가 높지 않는 대신 개별적인 참여가 높은 특성을 보였다. 노조나 정당 같은 기존의 조직운동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질적인 구성요소들은 매우 격렬한 투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 속에서 모종의 동질적인 사회집단을 지시하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불안정한’(precarious)이라는 형용사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성한 신조어인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유럽 반세계화 투쟁의 중심으로 부각되었던 이탈리아에서 2003년경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이 단어는 이후 유럽의 메이데이 행사에서 기존의 조직노동운동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행사를 상징하는 용어로 널리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2000년대 고이즈미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프리타가 양산된 일본에서도 2006년 메이데이부터 프레카리아트 행사가 기획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도 올해 메이데이에서 프레카리아트 총파업 행사가 개최되었다.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은 앙드레 고르가 신프롤레타르라고 부르고, 90년대 들어 비정규직 혹은 불안정노동자라고 불리던 사회집단의 최신 명명법이다. 모두 다 전통적인 공업노동자와 다른 무언가가 하나의 사회적 실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시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특히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는 기존에 상대적·부분적·비정상적인 개념으로 정립되던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들이 사회다수적인 새로운 사회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는 사회집단이야말로 전통적인 조직노동자들보다 오히려 초창기 프롤레타리아트 개념에 더 가까운 사회집단이다. 1840년대 영국과 유럽에서 사회적 용어로 떠오른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말은 당대에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달라진 경제현실은 언론인과 사회평론가들이 ‘빈민(pauperism)’과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된 세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빈민이니 프롤레타리아니 하는 말은 뿌리 없고 재산도 없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동자들로 정규직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의 보호대상도 되지 못하는 층을 뜻하는 말이었다. 칼 가는 사람, 구두장이, 재단사, 비숙련 공, 직물노동자 등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상태의 노동자들이 라인란트 일대 중소 도시로 수도 없이 몰려들었다. 쾰른 같은 도시에서는 인구의 20~30퍼센트가 빈민 구제 대상이었다. 독일 사회이론가 로베르트 폰 뮐은 현대의 공장 노동자 - 도제 훈련을 받거나 장인이 될 가능성도 없고,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없으며, 기술을 습득할 기회도 없다 - 를 ‘수레바퀴에 묶인 농노’와 비슷한 존재라고 묘사했다. 정치개혁가 테오도르 폰 쇤은 프롤레타리아라는 표현을 ‘집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과 동의어로 사용했다.¹¹⁾

2011년 초, 『프레카리아트 : 새로운 위험계급』이라는 책을 쓴 영국 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은 프레카리아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프레카리아트는 전 지구적 변환이 초래한 최근의 사회·경제 위기가 보여주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불안정한 직업들을 전전하면서 불안한 노동 생애를 날마다 보내고 있는 프레카리아트는 전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에 이른다. 대부분은 ‘도시 유목민’처럼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미래에 어디에 있을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이들은 정체성도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지도 못한다. 프레카리아트는 일자리를 갖고 있어도 사내 복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며,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연금 복지도 제한적으로만 받는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비정규직으로 서비스 섹터를 전전하며 살아간다. ... 이들은 하루 일을 끝내고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채팅을 하고 축구 경기에 광적으로 흥분하면서 여가를 보낸다. 극도의 불안정으로 인해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과 축구와 같은 스포츠에 여가를 많이 의존하는 것이다. 현대판 ‘빵과 서커스’(로마시대에 민중에게 먹을거리와 다양한

11) 트리스트럼 헌트, 『엔젤스 평전』, 이광일 옮김, 글항아리, p.99

불거리를 제공해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든 정책)라고 할 수 있다. ... 프레카리아트는 비정규직 범주와 다르다. 프레카리아트는 단순히 고용형태나 임금수준 등을 넘어 사회와 공동체, 삶의 안정과 불안 등의 측면에서 폭넓게 노동자 집단을 파악하는 개념이다.¹²⁾

19세기 중반의 프롤레타리아트와 21세기 초의 프레카리아트는 150여 년의 시간을 뛰어 넘어 상당히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가이 스탠딩은 프레카리아트라는 개념이 용역·계약직·일용직 등 종래의 비정규직과 거의 유사한 의미이지만 프레카리아트는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그들이 공유하는 '불안정'이란 측면에서 범주화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뜬 구름 잡는 다중이 아니라 “저임금”과 “불안정”이라는 코드를 공통점으로 19세기 중반의 프롤레타리아트처럼 명확한 실체를 가진 동질적인 사회집단이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포스트구조주의에 영향 받은 여러 담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탈노동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빈곤 인구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이들 생존조건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스스로 프레카리아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투쟁도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2011년 세계를 휩쓴 미국의 아쿠파이 운동을 본격적인 프레카리아트 투쟁의 출발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점차 사회 인구의 다

12) <이코노미 인사이트> 5호, 「21세기 위협계급 ‘프레카리아트’(가이 스탠딩 교수 인터뷰)」

수를 점해가고 있는 이 새로운 프롤레타리아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매우 유동적이다.

프레카리아트는 소득 불안정으로 인해 삶의 방식도 극도의 불안정성을 보인다. 대다수 프레카리아트는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가져다주는 윤리규범을 결여하고 있다. 사실 프레카리아트는 외국인이나 이주노동자, 경제적 약자 등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다. 이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침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불안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예컨대 외국인과 이주노동자에게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 전세계적으로 프레카리아트는 청년과 여성층에서 많아지고 있다. 인종적 소수자가 새로운 노동인구로 유입되면서 이 층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유연한 저임금 노동력의 원천이다. ... 특히 주목할 대목은 프레카리아트가 되기를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자녀·친척·친구들이 프레카리아트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경우 포퓰리즘과 정치적 극단주의의 구호에 휩쓸리기 쉽다는 점이다.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위기가 직면한 가장 두려운 측면이다. 불안정의 진창에 빠진 프레카리아트들은 자신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프레카리아트의 공포”를 이용하는-인용자] 선동가 혹은 극단주의자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¹³⁾

현재로서 이들은 아직 독립적인 계급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에 종속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요구보다는 “1%에 맞서는 99%” 같은 추상적인 구호로 대표되거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 위치에 있는 중장년층과 달리 노동시장에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불안정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88만원 세대” 같은 세대담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소위 프레카리아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주로 비교적 학력이 높은 20대에 한정돼 있

13) 같은 글

기 때문에 전통적인 맑스주의자들은 흔히 이 운동을 비계급적인 운동 또는 중간계급 운동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운동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은 보다 광범위한 불안정·저임금 노동자들의 주체화로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지, 조직노동계급의 결합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운운하는 낯익은 레퍼토리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하나하나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가이 스텐딩을 비롯해 앙드레 고르나 제레미 러프킨 등 이런 새로운 빈곤층의 등장에 주목한 진보적 학자들은 대부분 기본소득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화폐를 나누어주어 임금노동의 불안정화·저임금화로 빚어지는 사회적 불안을 무마하고 저소득계층의 소비력을 진작시켜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케인즈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급진좌파들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요구가 자본주의 체제를 침식하고 사회 혁명의 가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도는 이미 알래스카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제도의 법·제도적이고 국가의존적인 성격 때문에 사회 변혁의 성격을 가지기 보다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새로운 정치기반으로 만들려는 의회주의 사민당의 정치 슬로건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를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누가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에 따라 미래 운동의 지형이 바뀔 것이다. 이들을 포섭하거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지배계급과 사민주의자들의 기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은 여전히 공업노동자들에 매달리며 이들을 여전히 중간계급, 혹은 반(半)프롤레타리아로 배제하거나 조직노동운동이 보살펴야할 부차적인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다.

중공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가 대부분 서비스산업에서 창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은 자본주의 초기 공업에 대한 중농주의자들의 태도와 별 다를 것이 없다. 중농주의자들은 공업을 “아무런 가치도 창조하지 못하며 다만 가치를 변형시킬 뿐”이기 때문에 농업만이 생산적인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비슷하게 대다수의 맑스주의자들은 서비스노동이 가치를 생산하지 않으며 물질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만이 가치를 생산한다고 생각한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철학적 노동개념을 기초로 한 노동가치론에 대한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은 노동을 인간에게 고유하게 잠재된 추상적 에너지로 보고 인간의 노동행위는 자연에서 채취한 물질에 그 에너지를 투여하여 가치를 부여한다는 논리를 취한다. 이는 사실 17세기 존 로크나 윌리엄 페티 같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이 부르주아들의 소유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였다.

헤겔 철학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던 초기 맑스 저작에도 이와 유사한 인간주의적 노동가치론이 드러나 있다. 특히 1844년의 『경제학·철학 수고』에는 그것이 상당히 명확한 형태로 나타나 있다. 이 무렵의 맑스는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제시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자본주의적인 소외를 노동의 소외와 극복으로 바라보았다. 헤겔에게 있어 자연에 대한 파악은 정신의 발전에 의한 것이었으나 초기의 맑스는 노동으로 그것을 대체했다. 즉, 자연을 파악하고 그것과 동일성을 회복하는 철학적 매개는 정신이 아니라 노동이며,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소외는 노동의 소외로 드러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철학적 노동 개념은 자연에 대한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이른바 “물질적” 노동생산물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한다. 여기서 성(性) 노동, 감정노동, 돌봄노동 등은 공업노동에 비해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부차적이고 사소한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헤겔 철학의 영향은 맑스와 엥겔스가 1845~6년 『독일이데올로기』를 쓸 무렵부터 극복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그들에게 소외 같은 철학적 범주는 더 이상 중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소외라는 문제의식은 더 이상 철학적인 개념에서가 아니라 잉여가치의 착취라는 경제학적 개념으로 제기되었다.

맑스는 『잉여가치학설사』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생산적인가, 비생산적인가하는 문제는 그것이 어떤 물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이냐 아니냐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맑스는 아담 스미스의 생산적 노동에 대한 정의를 검토하며 스미스가 농업노동이든 공업노동이든 상관없이 자본과 임금노동이 직접 교환되고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면 생산적 노동이라는 것과 특정대상이나 팔 수 있는 상품에 구체화된 노동이 생산적 노동이라는 두 가지 규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적 노동이란 그것이 산출하는 것의 물질성과 무관하게 자본과 교환되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라고 명확히 규정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의미에서의 생산적 노동은, 가변자본 부분(임금으로 지출되는 자본부분)과 교환되어 이 자본 부분(즉 그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을 재생산할 뿐 만 아니라 그밖에 자본가를 위한 잉여가치도 생산하는 임금노동이다. 오직 이것 때문에 상품 또는 화폐는 자본으로 전화되며, 자본으로 생산된다.¹⁴⁾

예컨대 연극배우나 어릿광대도, 만약 그가 자본가(기업가)에게 고용되어 그에 게 임금 형태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을 그 자본가에게 돌려준다면 그는 생산적 노동자이지만, 수선 재봉사가 자본가의 집에 와서 자본가의 바지를 고쳐주고 자본가를 위하여 사용가치만을 창조하여 준다면 그는 비생산적 노동자이다. 전자의 노동은 자본과 교환되는 것이며 후자의 노동은 소득과 교환되는 것이다. 첫째 종류의 노동은 잉여가치를 창조하며 둘째 종류의 노동에서는 소득이 소비된다.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은 여기에서는 언제나 화폐 소유자인 자본가의 입장에서 구분되어 있으며 노동자의 입장에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이 때문에 가닐 등등은 어리석게도 사태의 본질을 얼마나 이해 못하였던지 매춘부, 하인 등등의 노동 즉 봉사 또는 기능은 화폐를 가져 오는가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작가가 생산적 노동자인 것은 그가 사상을 생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작품을 출판하는 서적상을 부유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어떤 자본가의 임금노동자인 한에서 생산적이다.¹⁵⁾

이에 따르면 생산적 노동이나, 비생산적 노동이나 하는 문제는 오로지 자본과 관계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잉여가치학설사』의 관점과 달리 『자본론』은 아마포처럼 기계가 도입된 제조업에서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다루고 있을 뿐, 불변자본의 비중이 낮은 서비스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자본론』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산업자본의 운동이었다. 이는 아마 『잉여가치학설사』에서 제기한 “연극배우, 어릿광대, 매춘부” 등등의 노동은 제조업에 비해 사소하고 부차적인 영역이라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잉여가치학설사』의 생산적 노동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후 제조업의 확대 발전과 함께 맑스주의는 극히 공업중심적인 이론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자본의 유통을 다룬 『자본론』 2권에서 맑스는 『잉여가

14) 칼 맑스, 『잉여가치학설사』, 아침, p.165

15) 같은 글, p.171

치학설사』에서 밝힌 견해와 언뜻 보기에 모순된 견해를 개진했다. 여기서 그는 자본이 유통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인적·물적 비용을 유통비용이라고 부른 다음, 그것이 순수유통비용·보관비용·운수비용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이중 순수유통비용에는 상업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과 부기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 그들이 받는 임금은 자본가의 비생산적 지출이며 잉여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자본가가 획득한 잉여가치에서 공제되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관비용과 운수비용은 생산과정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노동은 가치를 추가하는 노동이라고 했다.

『자본론』 2권의 이 부분은 이후 맑스주의자들이 사무·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을 비생산적 노동자로 간주하는 단초가 되었다. 스위지와 바란은 『독점자본』에서 이러한 분야들을 경제잉여를 흡수하기 위한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파악했으며, 에른스트 만델 역시 기본적으로 그 주장을 받아들여 『잉여가치학설사』와 『자본론』 2권이 모순적이며 후자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만델은 『자본론』 2권을 근거로 맑스가 결국 자본과 교환되는 노동은 모두 생산적 노동이라는 주장을 사실상 포기하고 “물질적인 상품의 생산에 참여하여 있고 따라서 가치 및 잉여가치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를 생산적인 노동자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 결과 그는 “후기자본주의에서의 서비스 부문의 확대는 기껏해야 작은 악(惡)일 뿐”이라는 현실의 전개과정과 상반되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다. 이 영역은 총잉여가치량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윤을 쫓게 되는 자본의 운동에 의해 자가용, 텔레비전, 비디오처럼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가진 물질적 상품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맑스가 살던 시대에는 만델이 말한 대로 부기노동이나 유통노동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작은 부분이었다. 당시 공장 모델은 수십에서 수백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기업주와 소수의 인원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구조였다. 브레이버맨이 지적한 대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도 대개 여섯 명을 넘지 않았으며, 기업주의 친척과 친지인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당시 사무실 직원은 노동자라기보다는 예비 경영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¹⁶⁾ 상업, 특히 소매상업은 소규모였으며 지금 같은 대규모 유통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맑스가 이러한 부분들을 자본가 전체의 지출부분이라고 생각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영역을 자본가 개인의 필요에 의해 자본가의 수입과 교환되는 비교적 작은 부분으로 상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부분들 역시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어 자본가에게 이윤을 확보하는 독립적인 산업으로 확립되었다. 여기에 다양해진 서비스 부문까지 합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고용은 물론 경제적 비중에서도 이미 공업 부문을 압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도로 거대한 부분을 비생산부분으로 설정한다면 현실 파악에 곤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비록 이런 주장을 펼치는 논자들이 대개 이 공제되는 비용을 개별자본의 것이 아닌 일종의 사회적 공비로 취급하면서 난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토록 거대한 부분이 공비로 잉여가치에서 공제되고 있다는 관념은 비현실적

16) 해리 브레이버맨, 『노동과 독점자본』, 이한주·강남훈 옮김, 까치, pp. 251~253을 보라

인 생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적인 노동이나 비생산적 노동이라는 그것이 산출하는 결과가 물질이나 서비스냐가 아니라 맑스의 말대로 자본과 관계로 설정되어야 마땅하다. 자본의 입장에서 이윤을 추출해낼 수 있는 노동이 생산적인 것이다.

18세기 중농주의자들이 공업을 비생산적인 것으로 본 것은 농업생산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지만 공산품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진 않은 사치품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공주의자들이 살던 시대에서 불과 3백 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공산품이 없는 삶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사회적 필요는 인간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화한다. 3세기 전에는 공산품이 인간에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영역으로 생각되었으나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농업생산력의 발전이 공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필요를 창출하고 마침내 그것을 인류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 생산력의 발전이 전통적인 서비스 영역을 넘어 사회 및 대인 서비스를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필요로 만들고 상품화하고 있다. 이 속에서 제조업은 자본주의의 등장 이후 농업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회적 생산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맑스주의자들은 비제조업 부분의 증가를 자본주의 쇠락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농업 생산력의 발전이 산업사회가 발전할 사회적 여력을 준 것처럼, 제조업 생산성의 발전으로 사회의 노동력 전반이 공장 노동에 투입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은 사회의 발전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우리는 서비스 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상상하기 어렵다. 공업노동만을 생산적인 노동으로 특화시키는 논리

들은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 사회가 공장 노동으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는 기묘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화되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분야의 노동역시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적 노동이다. 그러나 비생산적이라는 인식, 부차적인 영역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오히려 자본으로 하여금 이들을 저임금으로 묶어두는 사슬이 되고 있다. 이런 노동이 성인 남자의 가족 부양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여성·청년·청소년 같은 사회 잉여층의 부차적 노동이라는 인식이야 말로 이 노동의 가치를 낮게 묶어두는 인식적 장애로 기능하고 있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공업중심주의자들은 제조업이 높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자체가 고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제조업 노동이나 서비스 노동이나 자본과 결합할 때 동일한 노동인 것이다.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회적 가치와 인식인 것이며 그 역시 변화하는 것이다.

자본은 이러한 인식과 불안정 노동자들의 특수한 존재양식을 최대한 이용하여 극악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이 특유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작업장의 단결을 통해서 자본에게 직접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현실, 파트타임으로 노동시간이 분산되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현실, 이런 존재양식 자체가 또 다시 이들의 저임금·불안정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뜨리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8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월마트이다.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서비스 산업에서 비교적 대규모의 집약된 현장을 갖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이며 1962년 창사 이래 지금까지 무노조 사업장이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자동차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이 6만 달러(약 7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반해 월마트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연봉은 미국 1인당 국민소득에도 크게 못 미치는 1만8천 달러에 불과하다.

임금소득이 보편화된 현대 자본주의에서 단지 임금소득의 여부를 가지고 계급을 따지기 어렵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가들마저 임금소득자의 외양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사회는 일반 노동자들의 수백, 수천 배에 이르는 고임금을 받는 극소수의 자본가들과, 블루칼라나 화이트칼라나 무관하게 안정된 고용을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중간계급, 그리고 광범위한 불안정·저임금 노동자들로 구성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바를 것이다. 물론 중간계급의 성격 상 이들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 역시 언젠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현재적인 의식이 중산층의 그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소위 맑스주의자들이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들을 가리키기 위해 간혹 사용하는 반(半)프롤레타리아트라는 용어는 부분적인 임금소득자들을 지칭하는 개념이지 전적으로 임금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고용의 단속성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회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일 수는 없다. 오히려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프롤레타리아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이나 “노동자”의 정체성으로 조직된 중간계급들은 자신들이 이들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와 동일한 정체성과 이해, 예컨대 동일한 노동자계급, 동일한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

졌다고 주장하며 과거 부르주아들이 그랬듯이 이들을 동원하고 통제하며 독자적인 이해로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의 담지자가 되고 있다. 이들의 전반적인 저임금은 자본주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인구 다수부분의 저임금화에도 불구하고 선진자본주의 국가에는 지난 십여 년 간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소비력을 지탱해 왔다. 공산품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도 이들의 생활수준을 일정정도 유지시켜 주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자산 거품을 유지해 왔던 마지막 지렛대인 부동산 거품이 폭발하자 이들은 곧바로 당장 의식주마저 보장받기 힘든 집단으로 전락했다. 기본소득제도와 같은 극단적인 케인즈주의 정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 때 문이기도 하다.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의 가능성과 잠재성

새로운 프롤레타리아들은 제조업에 비해 현장에 집약된 노동자들이 아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처럼 밀집한 사업장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이러한 사업장들 역시 수천, 수만이 일하는 제조업 대공장의 집약성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전반적으로 이들의 존재양식은 파편적·분산적·유동적인 성격을 지닌다.

세계적으로 노동조합 운동이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 지 20여 년이 넘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논의의 역사는 최소한 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몇몇 예외를 제외하

면 불안정·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화는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한국에서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조가입률은 2.8% 밖에 되지 않으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15만 조합원 중 사내하청노동자는 5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 미미한 조직조차 대개 기존의 정규직노조에서 조직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금속대공장에서 사내하청운동을 일구고 노동조합을 건설한 것은 대개 민주노총과 적대적인 좌익 정파의 활동가들이었다.

대공장 노동자들은 그 집약성과 사회적 파급력 때문에 흔히 노동계급의 대표자로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을 배경으로 고용과 고임금을 보장받고 있는 조직노동운동이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의 대표자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요구는 전통적으로 노동계급 공통의 요구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의 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정규직노동자들에게만 유리하고 노동유연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기제로 활용되어 왔다. 이런 현상은 기존 조직노동운동의 연장으로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의 운동을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장에 집약되지 않고 분산적이고 유동적인 불안정·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존재양식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기존의 노동조합 모델로 조직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다수의 사회주의자들이 여전히 공장의 집약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68년 혁명에서 나타난 것처럼 개별화된 인자들의 투쟁은 폭발했다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푸코, 들뢰즈 등 프랑스의 포스트구조주의 이론들은 이런 경험의 현학적인 표현이었으며, 맑스주의자들은 그 이론들의 실천적

무력함에 대해 줄곧 비판해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 공업노동자들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신뢰가 포스트구조주의자들보다 결코 더 많은 것을 보여 준 것은 결코 아니었다.

최근 십여 년 간의 경험은 전통적 공업노동자들과 그들의 조직에 속하지 않는 개별적인 인자들의 투쟁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반전·반세계화 투쟁들은 소위 조직노동자들의 질서정연하고 정형화된 투쟁이 아니라 무정형적이면서 더욱 격렬하고 폭력적인 투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2001년 9·11 사태가 빚은 국제적 공안 국면과 이어진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주춤했다가 2008년 위기 이후 극적으로 폭발했다.

일방적인 매스미디어를 대체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의 발전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투쟁들이 보다 쉽게 확산되고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중동의 민주화 투쟁, 스페인의 “분노하는 사람들”의 투쟁, 미국의 아쿠파이 투쟁은 모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공간의 집약성은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투쟁들이 입증하고 있다.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사람들이 새롭게 발전한 매체의 지원을 받아 어떻게 실물적이고 집단적인 투쟁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지 이들 투쟁은 잘 보여주었다.

문제는 이러한 투쟁을 바탕으로 어떻게 일상적인 조직과 실천을 만들어가며 그것을 기반으로 보다 급진적인 의식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연적인 폭발이나 계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선진적인 부분이 필요하며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인 사전조직화

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의 존재양식은 일정정도 안정된 직장을 가진 층을 기본 조직 대상으로 상정한 기존의 노조와 정당을 뛰어 넘는 모델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등장하여 노동조합의 주요한 형태가 된 산별·업종·기업별 노조 등 전통적인 조직 모델들은 이러한 프롤레타리아트를 조직하는 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최근의 시도들은 대개 기존 노동조합의 특성보다는 생활 공동체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단일한 현장에 모여 있지 않고 유동적이고 분산적인 노동자들에게 “지역”과 “생활”이라는 것이 주요한 코드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공동체들이 친목단체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식, 정치적 운동과 직접 결합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가 현장에 집약되지 않았다는 상황은 흔히 약점으로 지적되지만 이는 반대로 현장과 노조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들을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공장노동자들의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관계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커다란 딜레마의 하나였다. 맑스가 활동하던 시대부터 노동자들의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관계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독일의 라살레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오직 정치투쟁을 통해서만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프랑스의 무정부주의자들과 생디칼리스트들은 정치투쟁은 부르주아 국가주의에 포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파업과 같은 노동자들의 직접행동에 기초

해서만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맑스와 엥겔스는 양자가 모두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며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결합을 주장했다.¹⁷⁾

그러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은 현실에서는 독일 사회당의 예처럼 당과 노조의 기계적인 분업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노조는 경제투쟁을 담당하고 노조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정치투쟁을 담당하는 이러한 활동방식은 노동자들을 표를 찍는 대중으로 수동화 시키고 정치와 경제의 부르주아적 이분법을 재생시키는 효과를 불러왔을 뿐이었다.

이에 비해 러시아 불세비키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비합법적인 정당이 직접 현장의 당 조직을 통해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1890년대 러시아 맑스주의자들 내부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의 선전과 교육 중심의 활동에서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경제투쟁에 직접 개입하고 지원하는 활동으로 운동 방식을 전환했다. 산업지대인 분트에서 활동한 크레머의 『선동론』은 이런 운동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투쟁이 격렬해지면 자연스럽게 정치투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정치투쟁을 배타적으로 강조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준 강렬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사실 이런 노선을 근본적으로 반대한 적이 없었다. 그의 경제주의 비판은 정치노선이라기보다는 조직노선 상의 논쟁에 더 가까웠다. 1890년대 말이 되자 러시아 각지에는 레닌과 마르토

17) 맑스는 『임노동과 자본』 등의 저작을 통해 라팔레주의자들의 임금철폐설을 비판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 실제로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무정부주의자들에게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하는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보다는 혁명이 쉽다는 논리로 그들의 비현실성을 비웃었다.

프의 페테르스부르크노동자해방투쟁동맹을 필두로 사회주의적 지식인과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결합한 활동가조직들이 많이 생겨났다. 경제주의자들은 대개 러시아 산업지대에 분산된 활동가조직들을 노동조합으로 발전시키거나 혹은 그 자체로 좋다고 생각했던 반면 레닌은 이를 중앙집권적인 정당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맑스는 정치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를 일 반적으로 사회에 제기하는 투쟁도 정치투쟁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레닌은 그런 정치투쟁을 노동자들의 자생성에 굴종한 조합주의적 정치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경제투쟁 자체로부터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정치 는 조합주의적인 정치로 귀결되지 국가권력을 타도하거나 민주주의의 문제의식으로 제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레닌이 제시한 해결책은 공장 외부에서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공장의 노동자들로 정치의식이 불어넣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당히 엘리트주의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노선은 조직의 문제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즉, 정당은 직접 노동자들의 흔히 공장세포로 불리는 현장의 기초 당 조직을 통해 경제투쟁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정치선동으로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각성시켜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오해와 달리 레닌이 주요하게 제기한 정치적 선동의 내용은 제2인터내셔널과 별반 다르지 않은 민주주의적 요구들이었다.

이러한 노선은 러시아 혁명 이후에 코민테른의 공식 노선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러시아와 달리 노동조합이 하나의 제도로 확립된 서구 노동운동에 코민테른 조직노선을 이식하기 위한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공장세포는 독립적인 정치조직체라기 보다 노동조합 활동의 배후정치로 전략했다. 스탈린주의에서 당-세포-노조의 전달벨트

이론은 이를 정식화시킨 것이었는데, 이는 사실 현장에서 정치선동과 경제선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한다는 공장세포 원래의 의의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이 보여준 것처럼 초기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은 민주주의의 확대를 주요한 요구로 내걸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받아 제2인터내셔널에서도 보통선거권에 대한 요구가 가장 중요한 실천적 요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차 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군주제가 폐지되고 보통선거제가 도입됨에 따라 8시간 노동제와 더불어 시민주의 운동의 두 축을 이루었던 민주주의적 정치투쟁의 요구가 사실상 기각되었다. 그 결과 코민테른의 전술은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실제적인 매개를 상실하고 오로지 노동조합적 요구들을 가장 전투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으로 경사되었다. 코민테른 3차 대회가 제출한 「전술에 대한 테제」는 이러한 노선을 명백히 천명했다.

자신들의 부분적 요구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는 자동적으로 전체 부르주아 및 그 국가기구와 투쟁할 수밖에 없다. 부분적 요구를 위한 투쟁이나 개개의 노동자그룹의 부분적 투쟁이 자본주의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전반적 투쟁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공산당의 슬로건도 또한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고, 일반화 되어 마침내 직접적인 적의 타도를 호소하는 슬로건에 이른다.¹⁸⁾

트로츠키의 이행강령은 이러한 코민테른의 전술을 그대로 강령으로 정식화한 것이었다. 독일 사민당의 강령이 사회주의적 이상과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실천의 분리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한 트로츠키는 민주주의

18) 코민테른 3차 대회, 전술에 관한 테제 (1921년 7월9일)

적인 정치적 요구를 배제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적 요구를 중심으로 강령을 구성했다. 이는 결국 현장의 사회주의자들이 정치적 제 요구를 기각하고 이른바 “생산의 정치”로 함몰되도록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공장에서 경제투쟁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정치투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되더라도 레닌이 조합주의 정치로 규정한 노동조합 요구를 법제화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투쟁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반대로 1968년에 나타난 것처럼 공장 외부의 사회적 위기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끄는 경우가 더 많았다.

프레카리아트 운동은 차티스트 같은 초기 프롤레타리아트의 운동처럼 현장의 자본가에 대한 요구보다는 직접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의 요구는 “1%에 맞서는 99%”라는 슬로건에서 보이는 것처럼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사회경제적 대안보다는 급진적인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다. 이들이 독자적인 사회경제적인 계급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인 위기의 심화가 필요하다. 다가올, 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할 주체로서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실천과 구체적인 요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들의 존재 조건에 대한 더 깊은 연구와 직접적인 실천의 경험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동의 경향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우선 유럽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게는 1차 대전 이후, 우리에게 87년 이후 기각된 민주주의적 요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불안정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세계화된 자본의 힘이다. 그 앞에

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를 일정 조율하는 역할을 하던 국민국가의 대의제 합의구조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되었다. 국가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된 자본에 종속되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들조차 후퇴하고 있다. 대의제 합의구조를 보완하던 코포라티즘 체제 역시 세계화 된 자본의 요구를 조직노동운동이 추인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가 점차 사회적 인구구성에서 다수의 위치를 점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변하는 제도 정치세력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 속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무의식적인 인식은 한국에서의 촛불 투쟁이나 아쿠파이 투쟁에서 나타나듯이 민주주의, 그것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이끌리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의식을 유러코뮤니즘 같은 국가개조론의 방향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들과 폭로를 매개로 하여 보다 직접적인 민주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체제에 대한 요구로 이끌어야 한다.

거리와 광장에서의 해방감이 일상적인 정치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터에서의 경제적인 차별에 대한 요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지금까지 운동에서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주의자들의 요구는 지나치게 조직노동운동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과 같은 요구들은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채 10%도 되지 않은 조직노동운동에나 적용되는 요구이지 노동조합조차 설립하기 어려운 불안정·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시간 단축 같은 요구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일반적인 요구를 넘어 불안정·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더욱 구

체적인 요구들이 정식화되어야 한다.

여성, 청소년 등 우리가 흔히 주변부 노동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성요소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대개 일터와 생활에서 일상적인 차별과 배제에 시달리고 있다. 공업노동자들을 배타적으로 기반 하려한 맑스주의자들이 대부분 여성, 환경 및 여타 소수자 운동에 대해 그 중요성을 폄하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이 조직하려는 대상이 주로 남성노동자들이란 점, 경제투쟁을 이들을 조직하는 중심 고리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진보에 뒤처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저임금과 불안정성이라는 일반적인 공통성 아래에 다양한 소수자적 정체성을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일본에서 프레카리아트 메이데이 행사 광고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불뿔이 해체되면서 전쟁 상황을 강요받고 있다. 노숙 생활자는 차별과 배제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으며 ‘자립’을 강요받고 시장에서 방출된다. 장애인들은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자립지원 법’이라는 명목 하에서 자기 책임으로 일할 것을 강요받는다. 여성 파트타임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정규직은 꿈도 못 꾸는 노동만 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는 인간성을 유린하는 지문 날인 따위의 치안 관리에 휘둘리면서 주변부 노동자로 흑사당한다.¹⁹⁾

이러한 주체 구성 때문에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는 주변부, 소수자

19) 아마미야 가린, 같은 책, p.25

들의 이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일상적인 차별과 배제에 대한 투쟁으로 일상적인 정치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따라서 트로츠키의 이행강령을 기본 모델로 현재 사회주의자들이 제출하고 있는 강령들과 달리 이런 부분들을 소위 '부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에 역지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요구들을 중심에 놓고 이를 극복한 사회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요구들을 기각할 수는 없지만 정치와 이데올로기로 중점을 이동하고 민주주의·여성·환경 등 과거에 부차화 되어 왔던 문제들을 일상적인 실천의 요구로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넓은 전략·전술과 단절이 필요하다

투쟁에 대한 이론은 투쟁의 경험에서 나온다.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20세기 초반 유럽 각지에서 벌어진 대중파업의 경험은 이전까지 생디칼리스트들의 구호이던 총파업과 노동자통제를 사회주의자들의 전술과 요구로 받아들이게 했다. 1917년 러시아의 경험은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실천을 중요시하는 코민테른 전술을 만들어냈다. 이것들은 모두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가진 전술들이었다.

2차 대전 이후 산업 국가들을 휩쓴 세 차례의 국제적인 반정부운동, 즉, 68년, 99년, 2011년의 투쟁에서 전통적인 공업노동자들은 투쟁의 주체로 서지 못했다. 68년 혁명은 포스트구조주의를, 99년 이후 반세계화 투쟁은 다중이라는 담론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2008년 세계

를 휩쓴 경제위기와 점령운동은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와 광장 점령을 새로운 유행으로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현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의 전략·전술의 대부분을 여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1920년대 코민테른에서 정식화된 노선들이다. 프레카리아트라고 불리는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들,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를 주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코민테른 노선으로 대표되는 대공장/정규직/남성중심의 전략·전술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우리가 맑스와 엥겔스, 레닌 저작들의 오타쿠가 아니라 진짜 현실을 분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유물론자들이라면 이른바 “맑스주의의 역사와 전통”보다는 현실을 중심에 두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